

“재일작가 삶 기록지 않았지만 한국인의 정체성 잃지 않았죠”

“항상 나의 나라, 나의 조국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재일작가로서의 삶은 기록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견지했어요.”

재일작가 김석출(75). 그는 1949년 일본 기후현에서 태어나 1955년 오사카 사카이시로 이주해 현재까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부모는 경북 군위군 출신이다. 1939년 징용공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그의 부모는 1945년 해방을 맞아 조국으로 귀국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리는 디아스포라작가전에서 김 작가를 만났다. 오는 5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김석출-두드리는 기억’. (개막식은 29일 오후 4시)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일반적인 작가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작은 체구에 선한 인상이 이웃집 할아버지 느낌이었다. 그러나 유해 보이는 인상 이면에 디아스포라 작가로 살아야 했던 고단함 등이 묻어났다.

시대의 격랑에 휘말려 일본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의 아버지는 작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 그의 형제자매는 9남매였지만 부모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두 딸은 고향에 남겨졌다. 앞친네 딸친 격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흠뻑 머니는 일본에서 7남매를 건사해야 했다.

그는 “어머니가 함바집 등을 하며 어렵게 돈을 벌었지만 일본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갖은 모욕과 멸시를 당했다”며 “나 또한 기후현 탄광에서 2년



‘1980. 5. 27’

정도 일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해 가난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 57점, 삽화 48점 등 총 105점이 출품됐다. 그의 삶과 예술을 엿볼 수 있는 아카이브 자료 100여 점도 비치돼 있다.

김희량 하정웅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김석출의 첫 개인전이자 전 생애를 아우르는 첫 회고전”이라며 “지난해 9월 준비를 시작해 오늘 개막하기까지 번역 작업 등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에는 지난 2003년 하정웅(광주시립미술 명예관장)의 기증으로 김 작가 작품 ‘5월 광주’ 시리즈 34점이 소장돼 있다. 이번 전시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하정웅컬렉션 34점을 비롯해 일본에서 운송해 온 그의 초기작품, 3·1운동 ‘유관순’ 연작

등이 나와 있다. 또한 통일 염원을 담은 최근작 등도 포함돼 있어 예술세계를 다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전시는 ‘재일디아스포라, 김석출의 생애’, ‘미술에 입문과 재일의 인권’, ‘광주의 기억’, ‘되돌아보는 유관순’, ‘과거와 현재를 잇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기는 디아스포라로서 겪었던 차별과 재일의 인권, 북송선 문제, 베트남 전쟁 등을 다뤘다. 18세인 1966년 오사카시립미술연구소에서 회화기법을 습득했던 작가는 당시 재일 1세대 작가들처럼 인권문제와 조국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재일의 인권을 향해’, ‘서울의 하늘’ 등이 그러한 작품이다.

“조선반도가 남으로 분단되고 재일동포들도 ‘북이다’, ‘남이다’ 하고 싸움이 끝나지 않는 나날이었



▶하정웅미술관에 서 5월 26일까지 열리는 디아스포라작가전에 참석한 김석출 작가가 ‘되돌아보는 유관순’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하정웅미술관 디아스포라작가전 ‘김석출-두드리는 기억’
5월26일까지 회화·삽화 등 총 106점 출품…29일 개막식

광주의 청년들이 포승줄에 묶여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담은 ‘1980.5.27’은 신문과 TV에 보도되면서 재일동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유관순’ 연작을 비롯해 재일디아스포라의 고뇌, 분단조국의 화합을 염원하는 그림을 그렸다. ‘유관순을 그리게 된 것은 1993년 동화책 ‘조선의 잔다르크:유관순’을 그리면서였는데’ 생각, 이화여대, 서대문형무소, 전쟁기념관 등을 취재했다.

힘찬 세월을 살아왔지만 김 작가의 작품은 투쟁과 구호 등 선전, 선동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아카데미적이고 유하며 깊이가 있다. 내면에서 충분히 숙성을 하고 예술적 승화를 도모했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준기 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재일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5·18, 3·1절 등 역사식을 견지해왔던 김석출 작가의 ‘의미있는 기억’을 조명한다는 데 있다”며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독립운동 역사의 송고함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통속민요부터 사물놀이까지 ‘국악의 향연-다시 봄’

영남·호남·중부지역 농악에서 비롯된 ‘삼도농악가락’은 네 가지 타악기의 빠르기, 장단 대비가 돋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형식미를 벗어나는 산조 특유의 미(美), 긴장과 이완을 넘나들며 풍취를 뽐내는 사물놀이 등. 우리 국악은 다채로운 격과 멋으로 듣는 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 국악연주단이 ‘국악의 향연-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3월 9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2024 국악원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프로그램 일환으로 열리며 가·무·악이 결합어진 국악 공연을 한 자리에 감상하는 자리다.

기약할주 ‘수제천’이 막을 연다. 삼현육각(황피리 2·젓대 1·해금 1·북 1·장구 1)의 기본 편성에 저음역대 아쟁, 고음역대 소금을 보완한 작품이다.

국립남도국악원 3월 9일 진악당

1947년 초연된 김백봉의 무용 작품 ‘화관무’도 준비돼 있다. 궁중정재 복식에 화관을 쓰고 흥겹게 추는 춤이다.

18현 가야금독주 ‘춘설’은 김태경이 연주한다. 봄 눈 내리는 마을 풍경을 신비롭게 담아내며 장구에 김명준 교수.

‘사철가’, ‘노들강변’, ‘짚은 방아타령’ 등 경기민요의 향연도 공연장을 수놓을 예정이다. 결속한 남도 민요에 비해 경쾌하고 부드러운 선율을 정유정 소리꾼의 목소리로 전한다. 특히 ‘사철가’는 ‘신사철가’와 함께 남도민요 버전으로도 들려준다.

이 밖에도 이지는(무용), 이관규(대금)가 보여주는 ‘무용, 대금-대금산조, 춤’도 있다. 공연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에 기반한 산조춤으로, 일정한 형식과 틀에서 벗어난 창작무와 독주 악기들의 특색이 가미된다. 영남, 호남, 중부지역 농악에서 비롯한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도 우리 신명을 전한다.

국악원 정순영 담당자는 “이번 공연에는 전문 예인들이 부른 통속민요부터 일반 가인들이 심취했던 사물놀이 등 국악의 폭넓은 장르를 모두 담았다”며 “봄을 맞아 펼쳐지는 공연이 관객들에게 흥겨움을 주고, 생기를 북돋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CC 전시 ‘디어 바바노냐’·‘이음지음’ 인기

관객들 각각 10만 명 돌파

예로부터 해양은 교역의 주요 관문이자 문명을 꽃피우는 통로였다. 국제적인 해양도시를 오가는 상인들로 인해 문명의 교류와 융합이 이루어졌다. 인도의 코치,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중국의 취안저우 등은 도시문화를 꽃피웠던 해양도시들이다.

아시아 도시 경관들은 시각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아시아적 사유가 담긴 전통적 건축과 공간들은 저마다 개성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진행하고 있는 전시 ‘디어 바바노냐’와 도시 공간 건축을 모티브로 한 ‘이음지음’이 각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해 ‘화제’다.

ACC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관람객은 ‘디어 바바노냐’ 11만2502명, ‘이음 지음’ 10만 3525명으로 집계됐다.

‘해양도시 속 혼합문화’인 ‘디어 바바노냐’는 융복합 미디어아트를 매개로 오감 만족을 이끌어 냈다는 평이다. 체험형 콘텐츠가 주말과 휴일에 가족 단위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ACC는 1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최근 10만회 관람객 축하 이벤트를 준비했다. 행운의 주인공은 태어난 지 120일 된 고연석 아기와 가족들로, 이들은 기념품을 경품으로 받았다.

‘이음 지음’은 ‘건축’을 모티브로 국내외 예술



‘이음지음’

가들이 현대적 미술 언어를 구현한 전시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독일, 스위스, 독일 출신 미술가 19명(팀)이 참여해 공존과 어울림의 의미를 표현했다. 특히 누리소통망에서 인종차 명소로 알려져 화자되고 있다.

‘디어 바바노냐’는 오는 6월 16일까지, ‘이음 지음’은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김만수 교류홍보과장은 “이번 두 전시는 대중의 눈높이뿐 아니라 예술성, 인문학적 요소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며 “‘해양’과 ‘건축’이라는 친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찾아 관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